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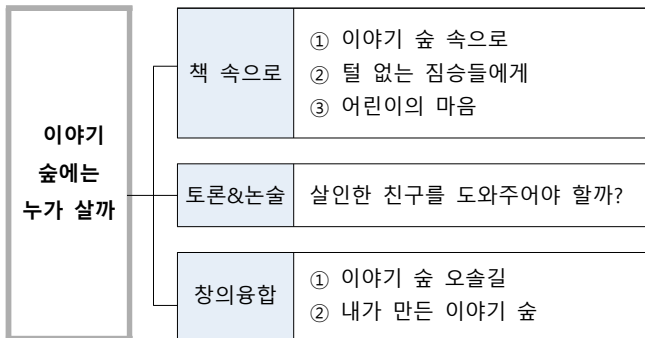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

- * 글: 송언
- * 그림: 허지영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 정가: 10,000원
- * 분량: 124쪽
- * 대상: 초등 4학년

· 책 소개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는 놀이, 친구, 가족, 호기심, 상상력, 세상 여섯 가지 주제의 초대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대장을 들고 이야기 숲에 들어가면 각 주제마다 2편의 우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이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참새네 학교, 대를 이어 달리기 경주를 펼치는 토끼와 거북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코끼리 배 속에서 탈출한 긴 꼬리 원숭이, 메꽃을 배려하는 착한 게으름쟁이 나팔꽃 등 숲속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 고민거리인 공부 문제나 친구 문제를 다룬 작품들부터 무심히 지나칠 법한 작은 생명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 본 작품들, 기막힌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 그림과 제목을 보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짐작해 보세요.

제목과 보고	
앞표지 그림을 보고	
작가의 이름을 보고	

※ (2~3)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숲지기 송언이 띄운 여섯 빛깔 초대장!

이야기 숲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놀이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참새네 학교,
 대를 이어 달리기 경주를 펼치는 토끼와 거북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코끼리 배 속에서 탈출한 긴 꼬리 원숭이,
 메꽃을 배려하는 착한 게으름쟁이 나팔꽃 등
 숲속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렁주렁 열렸대요.
 우리 함께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이야기 숲으로 떠나 볼까요?

2. 작가 송언 선생님의 다른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책을 읽었나요? 책의 제목을 써보세요.

⇒

3. 다음 각 낱말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① 우화	•	•	㉠ 동식물이나 사물을 인간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하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
② 풍자	•	•	㉡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③ 해학	•	•	㉢ 비판하고 싶은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독서 중 이야기 50자 소개

※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를 읽으면서, 다음 조건에 맞는 이야기를 골라 50자 정도로 소개해보세요.

조건	고른 이야기	고른 이유	50자 소개
① 가장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			
② 엄마가 생각났던 이야기			
③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이야기			
④ 가슴이 따뜻해졌던 이야기			
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⑥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야기			



독서 중 비슷한 사람 찾기

※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를 읽으면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고 어떤 면이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숲	생각나는 사람	어떤 면이 비슷한가요?
① 아들 원승이의 한 친구가 차갑게 대답했어. “아버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 입으로 관아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나서서 직접 돕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은 것으로 알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② “나팔꽃이 피기 전에 메꽃이 서둘러 피는 건 다 사연이 있는 거랑께. 나팔꽃보다 먼저 세상 것들의 눈총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여.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는, 메꽃이 한세상 살다간 뒤에, 나팔꽃은 뒤늦게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여. 메꽃을 배려하는 나팔꽃의 마음자리가 이렇듯 따듯허당께”		
③ “너 때문에 나는 멍청한 토끼가 되었던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내가 달리기를 못해서 너에게 진 게 아니었어. 멍청하게 쿵쿵 낮잠을 자는 바람에 억울하게 진 거라고.”		
④ “이눔아 얌전히 좀 있지 못 하겠니! 짧은 꼬리 원승이들처럼 귀엽게 재롱을 부리며 놀란 말이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기나 해?” 하지만 야단칠 때뿐이었어. 긴 꼬리 원승이는 허구한 날 몸부림을 쳐 대며 제멋대로 행동했단다. 도무지 눈치코치를 모르는 원승이였어.		
⑤ 까치는 창공을 날며 하늘 아래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굽어보았지.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렸어. “종구나, 종구나. 내 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서 종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보아도 종구나!”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이야기 숲 속으로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리켜 요즘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줄 알기나 하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닭둘기라고 비웃는다고.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한 채 오로지 모이나 콧속 쪼아 대는 닭을 닮아 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드높은 창공을 날던 비둘기가 그따위 모욕을 당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묻고 싶소이다.” / “사람 가운데에는 하루 세 끼니를 꼬박꼬박 먹고도 또 밤참까지 챙기며 배부름을 만끽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그따위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나) “그런데 왜 사람이란 날개 없는 짐승들은 날마다 공부, 공부하는 걸까요?”
 “그놈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구나. 남보다 으스스대고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 말이다. 한세상 살고 나서 저승으로 떠날 때가 되면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짓이란 걸 알게 될 터이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걸 어쩌겠느냐.”

(다)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한목숨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으뜸 친구가 아닐까. 너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

(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통할 줄은 몰랐네. 키 큰 툼립나무야, 앞으로 우리 친구 하는 게 어때?” / “그것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여우 씨가 찾아오면 내 마음은 편안하고 좋을 것이오. 왜냐하면 나에게도 기다리는 친구가 생겼으니 말이오.”

1. (가), (나)에서 비둘기와 참새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말에 답을 해보세요.

	비둘기	참새
하고 싶은 말		
나의 대답		

2. (다)에서 원숭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 (라)에서 여우 씨와 툼립나무의 친구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원숭이 아버지	여우 씨와 툼립나무

3. (다), (라)를 읽고,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그 이유와 함께 써주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털 없는 짐승들에게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미 북극곰은 늑대 무리로부터 새끼 곰들을 지키고자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운다. 새끼들만 없다면 자기 한 몸뚱이 챙기는 것쯤이야 옆드려 식은 죽 먹기일 텐데. 목목히 그 힘겨움을 이겨 내는 걸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숙연해질 지경이야. 어미에게 새끼라는 게 참 뭔지.

(나) “할머니, 나는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할머니가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꽃구경시켜 주었는데, 나는 왜 할머니를 유모차에 태우고 꽃구경시켜 드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 봤을까요?”

(다) “어디 그뿐이더냐. 세상에 나와 아낌없이 여한도 없이 고고한 목숨으로 7일 동안 최선의 삶을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그마치 7년 동안 굴뚝이로 묵언 수행 하며 도를 닦지 않느냐. 그런 드높은 삶의 경지를 어찌 사람이란 털 없는 짐승들이나 동물들의 허접한 삶에 견주겠느냐. 내 비록 하늘에서 살지마는 땅속으로 들어가 깊은 침묵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오히려 부러워 할 때가 많으니라.”

(라) 아마도 그래들겠지. 이번 여름에도 털 없는 짐승들은 매미들의 그악스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거야. 이따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은 매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느님의 입김인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그래야 매미들이 잠시 울음을 그치고 쉴 테니까 말이야.

1. (가)에서 북극곰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떠올려보세요.

⇒

2. (나)에서 여우 손녀는 할머니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할머니는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지 짐작해서 써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짐작해보아도 좋아요.)

⇒

3. (다), (라)에서 털 없는 짐승들이 매미의 드높은 삶의 경지를 알게 된다면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어린이의 마음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나마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는 번번이 이기고 토끼는 왜 계속 지는 것일까.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그 까닭은 아주 단순해. 토끼가 이기면 재미없는 달리기 시합이 될 테니까. 캉캉캉 토끼가 느림보 거북이를 이겼다고 하면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 이야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뻔한 결과는 좋아하지 않아. 아니,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거북이가 끝없이 토끼를 이기기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그런 게 어린이의 마음일 테니까.

(나) '왜 이렇게 배 속이 허전한 걸까. ㉠도대체 왜 그리 몸부림을 쳐 댔는지, 그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그 녀석을 쫓아 버린 게 아닐까.'

며칠이 지났어. 꼬끼리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처럼 안절부절못했단다.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긴 꼬리 원숭이를 찾아보았어. 하지만 녀석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단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한 차례도 긴 꼬리 원숭이를 볼 수 없었어. 긴 꼬리 원숭이는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다) "손님, 이 모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같이 모자 뒤쪽이 3센티미터쯤 쪽 찢어져 있지를 압니까? 이것이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모자 패션이래요."

여우 씨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 나무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 여우 씨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모자 가게를 등졌단다. 왜하면 자신이 낚아서 찢어진 모자처럼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오랜만에 읍내 도깨비시장에 들렀다가, 그사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해 버린 사실을 여우 씨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깨달은 거야. 자기 혼자만 옛날 세상에 푹 파묻혀 살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지. 땡 달린 하늘색 모자가 그걸 일깨워 준 거야.

1. (가)에서 작가는 어린이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2. (나)에서 꼬끼리가 ㉠을 물어보았다면 긴 꼬리 원숭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

3. (다)에서 여우 씨가 옛날 세상에 푹 파묻혀 살았다는 건 부끄럽고 슬픈 일일까요?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유는	이유는

4. 위 3번에 쓴 여러분의 의견에 (가)에 나타난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 여우 씨를 위한 응원의 말을 써 보세요.

⇒



독서 후 토론&논술 ① 살인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

※ 다음은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에 나오는 이야기 중 <원숭이의 세 친구>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들에게 아들이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 진정한 친구라면 살인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지 도와주지 말아야 할지 토론해보세요.

(가) "아버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 입으로 관아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나서서 직접 돕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은 것으로 알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친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제가 당하는 어려움과 같습니다. 기꺼이 친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지계를 주십시오. 나그네 원숭이의 사체를 짊어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솔직히 저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원숭이의 사체를 짊어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 샅을 들고 뒤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주제: 실수로 살인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

도와주어야 한다.

근거 :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근거 :



독서 후 창의융합 ① 이야기 숲 오솔길

1. 『이야기 숲에는 누가 살까』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다른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래 제시된 등장인물에게 소개하고 싶은 등장인물을 쓰고, 그들이 만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이야기 속 등장인물	소개하고 싶은 등장인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매미와 하느님>의 매미	<마지막 소원>의 할머니	평생 손녀를 돌본 할머니를 위해 매미 음악회를 열어준다.
<원숭이의 세 친구>의 아버지 원숭이		
<여우 씨와 모자>의 여우		
<참새와 비둘기>의 비둘기		

2. 여러분이 참새네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 참새에게 꼭 필요한 수업 계획을 세워주세요.

꼭 필요한 수업	이유	수업 시간
(예) 두발 모으고 멀리 뛰기	참새들은 몸이 작아서 멀리 뛰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매일 5분

3. 토끼가 <옴 거북이와 명칭한 토끼>를 읽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토끼의 입장이 되어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송언 선생님께

토끼 올림



독서 후 창의융합 ② 내가 만드는 이야기 숲

1. 다음은 <긴 꼬리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의 일부입니다. 꼬끼리 뱃속에서 나온 원숭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조건]에 따라 긴 꼬리 원숭이의 이야기를 지어보세요.

이따금 긴 꼬리 원숭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어. 한달음에 숲속 나라를 벗어나 머나먼 다른 세상까지 날아갔던 새들이 몰아온 것들인데, 어떤 새는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지.
 ‘긴 꼬리 원숭이는 탐험가가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또 어떤 새는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어.
 ‘긴 꼬리 원숭이는 멀고 먼 다른 숲속 나라에서 원숭이들의 대왕이 되었다고.’
 이런 뜻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새도 있었지.
 ‘긴 꼬리 원숭이가 병이 들어 어느 작은 움막에 앉아누워 있는 걸 보았다고.’

- [조건]
- 주인공은 긴 꼬리 원숭이입니다.
 - 세 가지 소식 중 하나를 고르거나 세 가지 소식을 연결해도 좋아요.
 - 긴 꼬리 원숭이가 숲속 나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꼭 써 주세요.

제목 :

꼬끼리 뱃속에서 나온 긴 꼬리 원숭이는 빗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했지.

“야, 세상 한번 넓고 희한하구나!”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1) (제목을 보고) 우화라는 걸 보니 동물이 주인공일 것이다.
- (2) (앞표지 그림을 보고) 원숭이, 너구리, 까마귀, 참새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할 것 같다.
- (3) (작가의 이름을 보고) 송언 선생님이 쓴 동화이니까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2. 답안 생략.

(가이드) 책날개에 나온 작가 소개에서 송언 선생님의 주요 작품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읽은 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읽어본 책이 없다면 읽어보고 싶은 책을 찾아보도록 지도해도 됩니다.

3. (예시답안) ①-㉠, ②-㉡, ③-㉢

■ 독서 중

◎ 50자 소개

고른 이유 생략.

(참고) 12가지 이야기 50자 소개

참새와 비둘기	하루 종일 먹이만 찾아다니는 비둘기를 보고 참새가 나무라자 비둘기는 사람은 하루 세 끼나 먹는다며 참견하지 말라고 한다.
참새네 학교	참새네 학교는 짹짹만 배우고 끝난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야 더 배우려고 하지만 참새는 딱 필요한 만큼만 배우기 때문이다.
원숭이와 세 친구	원숭이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지 시험한 후, 진정한 친구를 찾은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
여우 씨와 툼립나무	나이가 들어가는 여우 씨와 늘 한 자리에 곳곳하게 서있는 툼립 나무는 마음이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가 되기로 한다.
북극곰과 늑대	어미 북극곰은 새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늑대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여 새끼를 지키고 쓰러진다.
마지막 소원	할머니 여우는 손녀 여우를 정성 다해 키운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알게 된 손녀는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준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메꽃과 나팔꽃	나팔꽃이 늦게 피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메꽃을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 늦게 피는 것이다.
매미와 하느님	하나님은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고 매미에게 야단을 치고 미안해지자 매미의 고귀한 삶을 칭찬한다.
으뜸 거북이와 멍청한 토끼	거북이에게 진 것이 억울한 토끼는 다시 경주를 하자고 제안하고 거북이는 피를 써서 토끼를 계속 이긴다.
긴 꼬리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	긴 꼬리 원숭이는 코끼리 뺨속에서 태어나 자란다. 긴 꼬리 원숭이는 코끼리와 다른 원숭이들의 구박을 받다가 멀리 떠난다. 코끼리는 그제서야 긴 꼬리 원숭이를 그리워한다.
여우 씨와 모자	여우 씨는 굴에서 혼자 오랫동안 지내다가 세상에 나온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다시 굴로 들어간다.
너구리와 까치	까치는 개나리는 꽃이 피었을 때만 쓸모 있다는 너구리의 말을 듣고 개나리는 언제나 쓸모 있는 식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비슷한 사람 찾기

답안 생략.

(참고) 제시된 각 장면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특징

- 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할 말은 꼭 하는 사람
- ②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 ③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 ④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
- ⑤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이야기 숲 속으로

1.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비둘기	참새
하고 싶은 말	사람은 비둘기보다 더 먹을 욕심이 많으면서 비둘기를 비웃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나의 대답	사람은 비둘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삼시 세끼를 꼭 먹어야 한다. 밥참은 먹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꿈을 이루려면 필요한 공부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2. (예시답안)

원숭이 아버지	여우 씨와 툼립나무
친구를 위해 위험을 함께 하는 사람	마음이 잘 통하고 마음 편한 사람

3. (예시답안) 나에게서는 실수를 덮어주고 좋은 면은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했을 때 당황을 잘 하고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 책 속으로 ② 털 없는 짐승들에게

- (예시답안) 엄마는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밥을 해주고 회사로 출근한다. 퇴근 후에는 저녁 밥 해주고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한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쉬는 날인데 엄마만 못 쉬고 하루 종일 밀린 집안일을 한다.
- (예시답안) 할머니는 외국 여행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한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외국 여행을 가는 게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
- (예시답안) 매미는 자기 할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 책 속으로 ③ 어린이의 마음

- (예시답안) 질 것이 뻥한 거북이를 응원하는 것처럼 약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 (예시답안) 꼬끼리 뱃속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유는 세상의 변화를 알고 배우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변하는 세상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옛 것도 좋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4. (예시답안1) 여우 씨! 굴속에 지내시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우면 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도깨비 시장에 자주 산책을 다니면 금방 배우게 될 거예요.
(예시답안2) 여우 씨!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여우 씨가 좋아하는 옛날 것들도 매우 소중하지요. 옛 것을 잘 다듬고 살피서 사람들에게 소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토론&논술 ① 살인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

(예시답안1)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이다. 친구가 실수로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돕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친구를 돕지 않는다면 친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옳고 좋은 일에만 함께 한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예시답안2)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친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도 친구가 저지른 일은 아주 큰 잘못이다. 내가 도와서 친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친구의 잘못 된 판단으로 나까지 죄를 짓게 된다. 친구는 어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일은 도우면 안 된다.

◎ 창의융합 ① 이야기 숲 오솔길

1.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이야기 속 등장인물	소개하고 싶은 등장인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매미와 하느님>의 매미	<마지막 소원>의 할머니	평생 손녀를 돌본 할머니를 위해 매미 음악회를 열어준다.
<원숭이의 세 친구>의 아버지 원숭이	<여우 씨와 툼립나무>의 툼립나무	원숭이 아버지는 좋은 친구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여우 씨와 모자>의 여우	<긴 꼬리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의 긴 꼬리 원숭이	굴에서 벗어나 긴 꼬리 원숭이와 세상 구경을 실컷 하면서 산다.
<참새와 비둘기>의 비둘기	<너구리와 까치>의 까치	비둘기는 까치 덕분에 세상에 먹는 즐거움 외에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2. (예시답안)

꼭 필요한 수업	이유	수업 시간
개나리 그늘 찾기	여름에 더우니까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짹짹 소리 내기	여러 마리가 짹짹거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3. (예시답안)

송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거북이와 경주를 마친 토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진 것도 억울한데 세 번이나 진 이야기를 만들다니 너무합니다. 제가 명칭하다고요? 전 명칭한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달리기 실력으로만 승부하려고 한 겁니다. 선생님은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신청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명칭하다고 한 말씀만은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토끼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토끼가 이기는 걸로 해주세요. 꼭요!!

토끼 올림

◎ 토론&논술 ② 내가 만든 이야기 숲

(가이드)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려서 이야기를 만들고, 발단-전개-절정-결말에 어울리도록 이야기를 구성한 후 삶을 붙여 재미있게 써보도록 합니다.

(예시답안) 제목: 긴 꼬리 원숭이의 모험

[예시답안과 가이드]

코끼리 뱃속에서 나온 긴 꼬리 원숭이는 빗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야, 세상 한번 넓고 희한하구나!”
긴 꼬리 원숭이는 숲 속을 벗어나, 수평선이 까마득히 바라보이는 별판 끝으로 폴짝폴짝 뛰어갔다. 도착한 곳은 넓은 바다였다. 마침 고깃배를 얻어 탈 수 있었지. 어부는 능숙하게 배를 저어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멀리 작은 섬이 보이네. 작은 섬은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폴썩 뛰어오르는 거야. 작은 고깃배는 나뭇잎처럼 힘없이 뒤집어지고 긴 꼬리 원숭이는 바다 속으로 떨어졌지 뭐야. 그러더니 아주 큰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짐작했겠지만 그 동굴은 바로 고래였어.
긴 꼬리 원숭이는 코끼리 뱃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되지 않았어.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긴 꼬리 원숭이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를 잔뜩 먹고 한숨 늘어지게 잔 후 큰 창자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코끼리 창자랑 비교도 안 되게 길었어. 그리고 똥은 어찌나 많은지 빠져 나오기 전에 녹초가 되고 말았지.
항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쓰러질 지경이었다니까. 그러다 푸지직 고래 풍과 함께 바다로 나온 긴 꼬리 원숭이는 고래 꼬리를 잡고 유유히 헤엄쳤어. 바다 위로 올라오니 달도 밝더라고. 고래는 꼬리에 붙어 있는 원숭이를 힘껏 쳐서 육지로 날려 보냈지. 원숭이는 하늘 높이 날았다가 정글 속으로 떨어졌어.
긴 꼬리 원숭이가 떨어지자 수많은 원숭이들이 몰려들었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지. 그런데 원숭이들이 긴 꼬리 원숭이에게 절을 하는 거야. 원숭이 나라 임금이 나이가 많아 죽고 난 후 새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날아온 긴 꼬리 원숭이를 하늘에서 보내 준 새 임금이라고 생각한 거야.
긴 꼬리 원숭이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작은 움막에 들어가 며칠 동안 원숭이들이 바치는 맛있는 과일과 음식들을 실컷 먹었지. 하지만 정글에서 임금 노릇은 하기 싫었어. 몰래 도망가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깨달았어. 떠날 수 없다는 걸. 긴 꼬리 원숭이 배는 더 이상 움막 문을 빠져나갈 수 없었대. 그래서 긴 꼬리 원숭이는 어떻게 했냐고? 아직 원숭이 나라 임금 노릇을 하느라 숲속 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하다는 소문을 어제 기러기한테 들었어. 진짜야.